東大新聞

發行人 徐燉相
編輯人 徐燉京
主幹 宋榮
編輯部長 尹太

發行所
우편번호 100
서울市中区鑄洞3街26
東國大学校內
東大新聞社
電話交換 ㉒8131-9
本社直通 ㉒8577

每週火曜日發行

今週一言

「다잘라」전단의 그향기도 보잘것 없는 이세상것뿐. 계(戒)를 가진 사람의 그향기는 하늘에까지미쳐가나니.

<法句經>

74年度 入試要綱確定

入試管理委에서 最終決定

豫試成績20%反映

主觀60、客觀40%로出題

▼…74学年新入生 모집요강이 지난8월24일 入試管理委員会(委員長·金仁澤)의결정에의해 확정되었다。 考査과목이 전형기간 별차이가 없는 74학년도 입시 요강은 입학시험총점에 예비고사 성적 20%를 가산 반영키로결정하고 출제방법에 있어 고등학교教科書를중심으로 주관식 60%객관식 40%를 원칙으로하는것등이다。

▼…処長会議에서 확정되었다。 考査과목이 전형기간 별차이가 없는 74학년도 입시 요강은 입학시험총점에 예비고사 성적 20%를 가산 반영키로결정하고 출제방법에 있어 고등학교教科書를중심으로 주관식 60%객관식 40%를 원칙으로하는것등이다。

▼…敎務処(처장=金仁澤교수)가 지난24일 발표한 신입생입시요강을 보면 考査과목으로 필수공통과목을국어(1)·영어이며 필수개별과목에 일반사회·수학(1)등 에년과 별차이가없다。

그러나 師範大 가정교육과의 필수개별과목 수학(1)이 일반사회로 바뀌였고, 공통선택과목으로는 국사·상업·농업·수학(1)·가정(어학생)중에서 선택하며, 단 문리대·이학부·농림대·문과대·수학교육과·과학교육과는 물리(1)·화학(1)·생물(1)중에서도 선택할수 있게 하는등 새로운 과목이 삽입되었다。

고사과목배점은 국어(1)가 150점, 영어150점, 계열필수100점, 선택과목100점, 실기150점으로 5백점만점이다。

이밖에 고등학교성적·면접·신체검사성적은 전형에 참고로 하게되며 사범대학의 도서·벽지출신응시자와 농림대학의 동계출신 응시자는 특별전형 하는등 여러가지 특별우대하기로 했으며 2차지망은 全大學 어느과든지 선택이 가능하다。

74년도 東國大學校新入生 전형요강

분 류	고사과목및 해당학과
필수공통과목	국어(1) 영어
필수개별과목	일반사회(불교대, 문리대문학부, 법정대, 경상대, 농림대, 국어교육과, 사회교육과, 체육교육과, 가정교육과) 수학(1) (문리대이학부, 공과대학, 과학교육과, 수학교육과)
공통선택과목	국사, 상업, 농업, 수학(1) 가정(어학생) 단, 문리대이학부 농림대, 공과대, 수학교육과, 과학교육과는물리(1) 화학(1) 생물(1) 도 선택할수있다.
실기 과목	미술학과, 연극영화학과, 체육교육과.

1. 전형기일 1974년 2월12일—16일(후기)
2. 전형방법 가. 출제범위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하여주관식60% 객관식40%를 원칙으로 한다.
나. 입학시험성적총점에 예비고사성적20%를 가산반영한다.
다. 고사과목배점 : 총500점으로하며 국어(1) 150점. 영어150점. 계열필수100점. 선택과목100점. 실기150점으로한다.
라. 고등학교성적, 면접, 신체검사성적은 전형에 참고하며 사범대학의도서, 벽지출신 응시자와 농림대학의 동계출신응시자는 특별전형한다.

主任敎授更迭

國文科도그러나

지난1일字로 文理大 國文学科를비롯한 現海兵學校長이며 前文理大學長 劉時鐘大領의 주선으로 심사되었다。

이번 將兵慰問은 星友会会長 尹昌鎬·宋哲元先生이 出席하는 이英語特講은 모두 4단계로 나누어 基本文法으로부터 問題를 중심으로 한 総整理까지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英語A는 8시20분부터 9시50분까지, 영어B는 오후 4시40분부터 6시10분까지 이며 講義室은 G301이다。

行政大星友會

海兵隊將兵慰問

行政大学院 学生親睦会(会長·金炳賢)은 지난 8월19일 申宗淳行政大院長및 関丙天、洪鍾赫교수등과 海兵第2旅団을 訪問하여 多数의 위문품을 전달하고 將兵들의 勞苦를 치하했다。 金炳始会長등 30여会員이 참가하였다。

行政大學院 申宗淳院長 嶺南大서 博士學位

行政大学院長 申宗淳教授

지난8월25日 嶺南大学校에서 政治学博士학위를받았다。 行政学이전공인 申박사는 「韓國行政의 倫理」에관한研究」란 論文으로 博士学位를 받게된 것인데 嶺南大로서는 정치학박사 제1호이다。

優等奬學生發表

이태원君등 總1백19名

72학년도 제2학기 우등奬学生명단이확정되었다 学生処의 発表에 의하면 1학년 14명 2학년 37명, 3학년 33명, 4학년 35명 등 총 1백19명중 전체수석은 平均96.14點을 얻은 이태원(수학과4)君으로밝혀졌다。

지난1학기 장학수혜자 89명에 비해 우등奬学生이 많이 늘어난것은 증가된 것은 적극고무적인 것으로 흡이되는데 이들 우등장학생은수업태도 및 학업성적에 있어 전원의 모범이로 인정되어 장학금 혜택을 받게되다。

▲仏教大学=손철숙(仏1) 김미영(美術3) 강남석(美術3) 정용복(美術4) 이기선(美術3) 김미영(美術3) 정용석(美術3) 김정희(美術3) 김정희(美術3) 김정희

新學期와 우리의 所望

社說

73學年度의 初半期 第1學期는우리學園이 그 어느때보다도 躍進의 터전을마련하기 위하여 안간힘을 다한 試煉期였다。

國內外에서 品貴狀態로 들어간 建築材와 豫算面에 있어서의 惡条件을 무릅쓰고 5층現代式의 所願이었던 本師大建物및 年來의 宿願이었던 室內体育館의 竣工 大學캠퍼스의 最銅을 달리하게될 것이期約된다。뿐만아니라 「센타베리」僧院의 大僧正、印度上院議長등 來賓의 來訪은 또 우리大學의 國際的 地位를 測定하는尺度로 삼는데 족하는 慶事였다。

特히 數年來 農大學生들이 夏期放學을 이용한 農村奉仕와 實習에서 보여주었던 그熱意가 高評價되어 가고있는것과 발맞추어 今年度부터 工大學生도 農大學生의境遇와 마찬가지로 自進하여 各工場에서 現場實習을 치르게되어 國家施策인 第1學期는우리學園의 一致 産學一致에 앞장섰을뿐 아니라 밝혀려 高貴한 体驗을얻고 義氣로 뭉치는 이것 뿐것은 아직 그年輪이 일잔한 우리學府의 工大 敎育도 本軌道에 오른것을 뜻하며 다음 돋는한 일이라고 하겠다。

이와같이 어느 모로 보나 前學期의 本大學이 겪어온 자취는 前進을 위한 跛行的인 일들의 連續이었던 것이며 또 그 成果에 대한 展望은 매우 밝은 것이나 우리는 決코 이 試煉들에 얻는 成果만으로서 滿足하여서는 안된다。「새가 높이 �ۈ다고 認識하는 醉夢에는 이미 내리지 길을 밟게된다。」는 神会禪師의 金言은 바로 우리大學의 境遇에 있어서 곡 되새겨 보아야 하는 까닭이다。

즉 끊임없는 前進은 恒常 正當한 反省과 그 反省위에서 참신한 進路를 찾아 쉬지 않은 발버둥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며 이와같은 讓虛와 努力없이 前進을 바라고 榮光을 차지 하려는 것은 「나무위에 올라가 고기를 잡으려는 어리석음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神会禪師는 우리에게 두렷히 가르켜 주고 있는 것이다。

施設面의 拡大에 밝은 將來를 待하기에 앞서 이 施設을 充分히 活用하여 十二分의 成果를 거두는 것이 緊急한 課題이며 人物의 尺度로 하는 風潮와 矛盾點도 再考되어야 하겠다。

그러나 그制度가 現行制度이고 大學敎育目的의 하나인 指導的人物이 되려면 반듯이 겪어야하는 過程으로 되어있는 以上은 本大學에서도 이問題를 等閑히 할수는 없다。

여기에 現今의 우리나라 大學의 苦衷이 있는 것이다。

特히 衛生管理에서 高等의 實技에 이르기까지 広範囲한 知識과技能을 必要로 하는 師大의 体育敎育科같은 學科는 그간 大學의 体育振興을 위한 어느 한種目의 特技를 가진 選手의 優先入學許容의 傾向과 또 新設學科였던 材不足및 敎授의 闕員등 惡条件이 결격사유에도 資格敎師에 応하지않음수 없는 大學当局의 또하나의 苦衷이와같은 推察고는 이유이지만 矛盾點까지 難境을 돌고 前進하다는것은 그것이 결코 安易한 姿勢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點에서 大學当局은 물론 이거니와 學生但人도 非常한 각오를 가져야 할것이다。

特히 大學当局에 바라고저하는 것은 敎育政策化가 激甚한 現時局에 処하는 大學行政의 바람직한 姿勢는 결코 日前의 事態対応만에 급급하는 行政体系에서 벗어나 언제나 時局의 変化와 그 向方을 直視하고 한걸음앞서는 거시적인 視野에서 모든 企画이 이루어 져야 하겠다。

大學社会도 激甚한 競爭의 와중에서 앞질러 나가려는데 前進이 있는 우리나라의 그리 다름없는 우리나라의 現実情況 이 敎育의 現実性에 비추어 헛되이 設立年代의 長久를 자랑하고 施設의 炎華만을 誇示하는 學府는 그 存在의 致命的인 결함을 가지게 되는까닭이다。

學期以上으로 克服하기 어려운 四学年의 就職과 諸般資格考試의 季節이며 이가운데서도 今年부터 施되는 師大系의 敎師資格考試 같은 그 自体가 官学優位의 私立大学만을 対象으로한 것이기에 不合理한 點이 包含되어 있지만 敎師向上을 위해서 마땅히 치루어야 할 実情이다。

勿論 大学敎育은 學問의 殿堂이고 人格練磨의 道場이 敎育資格考試의 本質的인 目的이 달라야한다는 社会에서도 敎科目의 學科考査의 成果만으로써 어떤 人物의 能力全体를 저울질하는 唯一의 尺度로 하는 風潮와 矛盾點도 再考되어야 하겠다。

그제도 現今의 우리나라 大學의 敎育目的의 하나인 指導的人物이 되려면 반듯이 겪어야하는 過程으로 되어있는 以上은 本大學에서도 이問題를 等閑히 할수는 없다。

여기에 現今의 우리나라 大學의 苦衷이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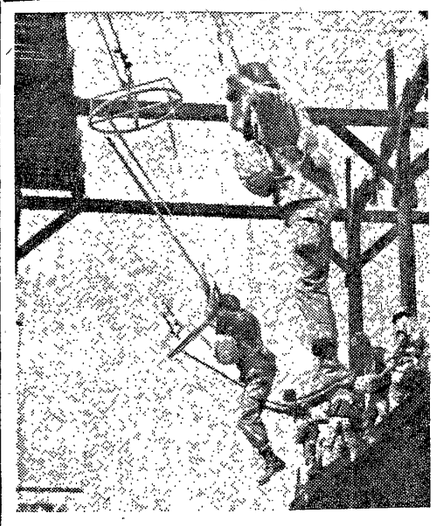
特히 衛生管理에서 高等의 實技에 이르기까지 広範囲한 知識과技能을 必要로 하는 師大의 体育敎育科같은 學科는 그간 大學의 体育振興을 위한 어느 한種目의 特技를 가진 選手의 優先入學許容의 傾向과 또 新設學科였던 材不足및 敎授의 闕員등 惡条件이 결격사유에도 資格敎師에 応하지않음수 없는 大學当局의 또하나의 苦衷이와같은 推察고는 이유이지만 矛盾點까지 難境을 돌고 前進하다는것은 그것이 결코 安易한 姿勢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거니와 學生但人도 非常한 각오를 가져야 할것이다。

特히 大學当局에 바라고저하는 것은 敎育政策化가 激甚한 現時局에 処하는 大學行政의 바람직한 姿勢는 결코 日前의 事態対応만에 급급하는 行政体系에서 벗어나 언제나 時局의 変化와 그 向方을 直視하고 한걸음앞서는 거시적인 視野에서 모든 企画이 이루어 져야 하겠다。

大學社会도 激甚한 競爭의 와중에서 앞질러 나가려는데 前進이 있

여름放學活動 3章

奉仕·實習으로 三伏잊은 40여일



올해에는 본교에서 총 3백여명이 14개지구에 분산되어 現住民들과 웃으며 作業한 가운데 目的한 성과를 거둔것으로나타난 大學生 연합봉사활동!。

大學生 연합봉사활동의 궁극적 목표는 大學生들이 現實을 直視할수있고 農村發展을 이룰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있다。 물론 매년 실시되는봉사활동에 문제점이 없는 것도 아니다。

철저한 분석하에 이루어져야하는 봉사가 미흡한준비로 인해 졸속을빚은例가 없는것도 아니며 점차 더규모로 확대되어가는 봉사활동추세에 편승해서 農民들이 봉사대원들에게 자기들의 활일을 전가시키는 依他心이 생기는것을 실제현장을다녀온 봉사대원들은 그나름대로느낀 많은 문제점을 指摘하고있다。

本校에서는 14개지구중 농어촌연구부의 7個팀과 농경3) 君은 숙소만 現地에서 제공받고 隊員들이 자취를하며 봉사에 나가 생활태도가 약간 문란한 학생들이 奉仕隊員의 작업이나 助言을 무시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農村生活을 경험하지 못한 학생들이 奉仕隊員으로 참류했기때문인것으로 보게되는데 좀더 깊숙히들어가면 이같은 현상이 계속되면 앞으로는 봉사대원들의 性格이 다라간 김경희 (가교2) 양은 女學生들의 복장이 제시되고 있던라고 女學生라운 고민을 시사해준다。都市에서 生活하던습성대로 행동하는 女學生을 奉仕隊員으로는 부적당하다는 말이된다。

그럼기하면 奉仕地域에 파견되는 現地民들의 性格이 다르긴해도 며칠때쯤이면 한부모형제처럼 친밀해진다고 말하는데 김동현 (

現場實習

農村理解에 큰 보람

住民들 依他心경계해야

奉仕隊의할일이 없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역시 공수로 봉사대원들을 선정했고 ELF、仏敎學生회가 江原道지방을 봉사지역으로 선정, 활동을 폈다。

이번 農漁村硏究部 7個팀에 속해 公州로 봉사활동을 나섰던 孫東敏 (國文3) 君은 3차례봉사활동을 나가면서 가장크게 절감하는 문제점은農民들의 의타심이 점차심각해지는 것같다고 전한다。 이같은 총격적인 애기는 봉사활동이 직급처럼 활발하지 못했던 초등의 作業이나 助言을 무시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農村生活을 경험하지 못한 학생들이 奉仕隊員으로 참류했기때문인것으로 보게되는데 좀더 깊숙히들어가면 이같은 현상이 계속되면 앞으로는 봉사대원들의 性格이 다라간 김경희 (가교2) 양은 女學生들의 복장이 제시되고 있던라고 女學生라운 고민을 시사해준다。都市에서 生活하던습성대로 행동하는 女學生을 奉仕隊員으로는 부적당하다는 말이된다。

그럼기하면 奉仕地域에 파견되는 現地民들의 性格이 다르긴해도 며칠때쯤이면 한부모형제처럼 친밀해진다고 말하는데 김동현 (

農村理解에 큰 보람

이에대해 申鉉昭食工科主任敎授는 「學生들이 現場實習에 참한 認識이부족하다는 것은 現場에 나가 實習하면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반면에 시설이 우수한 업체는 취업을 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들은 農大와 工大學生들로, 매년 實施하는 現場實習에 참여, 도시와농촌의 發展이란 課題와 유능한 기술인으로 자질함양이란 목표를 훌륭히 수행, 젊은知性人으로의 생생한 체험을 했다。

이들은 졸업부와同時에 전공분야에서 적응, 活用할수있는 숙련된 기술인력으로의 수련을갖고있다。

새농촌의 기수가 될농대생의 사명은 그만큼중차대하다 하겠다。 本校 農林大에서는 작년부터 學生들의 現場實習을 실시하고 금년에도 6월20일부터 1개월간 1,974명의 學生이참여했다。

農村實習은 卒業時까지 필수적으로 2學點을 취득케하고 卒業後 農農회 말자에 한해 4학점을이수케하고 있다。

이들이 졸업부 發展을 할경우 2백만원에서 5백만원까지의 영농자금을 받을수 있도록 학주고있다。 또 있도록 해주고있으로는 全体學生數의 5%정도의 영농 희망 학생에 대해 9만원정도의 장학금을 支給하고있다。

「大學生의 건전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를 기르기 위하여 작년에이어 금년 여름방학에도 「大學生特殊訓練」이 文敎部주최로 陸上·海上·山岳 등지에서 실시되었다。

전국 60여지대학 7백여명의 學生들이 참가한 이번 特殊訓練은 山岳訓練·海上訓練·空輸訓練등 3개분야로 나뉘어 각각 실시되었는데 本校에서는 山岳訓練에 한정철 (演映科·2) 군등 6명이、海上訓練에 임문규 (敎敎科·2) 군등 3명、空輸訓練에 민승화 (法科·2) 군등 8명, 총17명이 참가하고 돌아왔다。

이번에 실시된 特殊訓練은 「大學生 指導 對策의 일환으로 大學生들로 하여금 각界의 特殊訓練과 정을 이수케 함으로써 安保意識을 고취하고 강인한 体力을 연마하여 協同精神을 배양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육군○○敎育旅団에서실시된 大學生「空輸訓練」은대학생으로서훈련이 가능한 短期空輸敎育을받았으며, 海兵○○旅団에서 실시한 「山岳訓練」은 장래훈련과정및 기초훈련을받았다。

이번에 실시된 「大學生 指導 對策의 일환으로 大學生들로 하여금 각界의 特殊訓練과 정을 이수케 함으로써 安保意識을 고취하고 강인한 体力을 연마하여 協同精神을 배양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육군○○敎育旅団에서실시된 大學生「空輸訓練」은대학생으로서훈련이 가능한 短期空輸敎育을받았으며, 海兵○○旅団에서 실시한 「山岳訓練」은 장래훈련과정및 기초훈련을받았다。

特殊訓練

오늘을사는 花郎되게

心身단련·安保意識고취

또한 진해와 인천간南西海 해상에서 실시된 「海上훈련」은 艦上生活을 통한 해상에서의 기초훈련을 받았다。

本記者가 민관식 문교부장관과 同行하여 공수훈련장을 방문했을때 보두들 헬멧에 그을은 검은얼굴에 땀에 젖은 군복입고 머리에는 커다란 철모를 쓰고 「공수!」「공수」를외치며 보무도 씩씩한 모습이 보였다。

이들은 모두 일과를마치고 보고및 경과보고에 이어 本校의 조직운영에 따른 課程運營등 논의되었고입학과 졸업 대회 해수욕장에서 제1회 夏季세미나가 최구회장 (51敎文·國會議員) 등 40여명이 모인가운데 「공창회 조직확대의 효율적 방안」이란 主題로 열렸다。

2일 오후 현충사답사 후 3일 최구회장의인사와 건배에 뒤이어 주제발표가 있었다。

최회장은 3만同門들이 단결로 同門숲 조직에앞장서 줄 것과 동창회의 학조직을 부탁하였다。

한편 각분과위 발표자는 ▲FOUR 연구회·유력진 (68경영·코리아헤럴드社숲원) ▲농창우회·오홍범 (66농학·농촌진흥청) ▲아산단지회·박승희 (

同窓會 소식

第1回夏季세미나

大川서 3日間

지난 8月2日부터 4일까지 3일간 충남 보령군 대천 해수욕장에서 제1회 夏季세미나가 최구회장 (51敎文·國會議員) 등 40여명이 모인가운데 「공창회 조직확대의 효율적 방안」이란 主題로 열렸다。

2일 오후 현충사답사 후 3일 최구회장의인사와 건배에 뒤이어 주제발표가 있었다。

최회장은 3만同門들이 단결로 同門숲 조직에앞장서 줄 것과 동창회의 학조직을 부탁하였다。

한편 각분과위 발표자는 ▲FOUR 연구회·유력진 (68경영·코리아헤럴드社숲원) ▲농창우회·오홍범 (66농학·농촌진흥청) ▲아산단지회·박승희 (63농학·천안농고) ▲보령군지회·이석조 (65농학·대천농고) ▲법5회·강춘청) (57법학·서울지방검찰청) ▲일진회·김정식·덕한교육공사대표) 등분이다。

또한이밖에도 매년세미나를개최, 名講을 통하여지방동문회의 조직화 및 재단, 재학생代表들도同席토록 하였다。

農學科同窓會 發起總會가져

지난7월28일 과학관2층 농학과 실험실에서열린 농학과 1기 (동대부교수) 李得根 (1기장사) 김광배 (농과1기·동대부교수) 김경제 (8기장산) 윤천영 (7기) 고광윤 (9기) 오홍명 (10기) 이윤원 (14기) 同門등 13명의 발기인이 모인가운데 발기총회를가졌다。

창립총회는 오는22일농학관 실험실에서 갖기로하는한편 준비위원장에김홍배박사, 부위원장에 김경제、윤천영同門을 각선출하는 한편 자기별로준비위원을 선출했다。

農大와 함께 20年 과수 等 계속연구

農林大學 昇雨박사 31일 정년퇴임

지난 31일 정년퇴직하게 되었다。 『그동안 京國에 몸담아 오면서 본교 농학과, 특히 과수원예분야를 硏究하며 後學 敎育을 指導하시며 모든 특 전을 바랍니다 퇴임소감을 말씀하신다。

『現在 학생들의 학습환경은 特殊과 견주어는 敎授陣등으로 最大限보장이 되어있어서 학생들은 自己啓發을 充分히 할수 있다』고 前提한 李교수님, 『實力위주인 現社會 李昇雨교수님이 本校와 인연을 맺기는 지난 50년—。 35년 京都帝大를 졸업한 후 歸國하여 大邱農專敎授로 渡日, 第6회 韓日친선과수세미나에 참석하고 25일 KAL기편으로 귀국。

▲金炯見 (60불교·동대 助敎) 同門=지난달 27일부터 4일간 세계불교 청년지도자회에 참석, 불교학생부 2명회장으로취임하고 동 본부 순교자 (6명)의 묘지 및 순교자 기념탑 등을 배알하고 귀국。

▲金東英 (61정외·국회 의원) 동문=지난8월27일 자유중국 (대만) 의회초청으로 15일간 시찰, 대만 (62경제·중립 전기통업상사) 동문=지난달 1일 자유중국에서 개최한 아시아 청소년대회에 한국대표로 참가하고 16일 귀국。

▲金巢雄 (62경제·중립 전기통업상사) 동문=지난달 1일 자유중국에서 개최한 아시아 청소년대회에 한국대표로 참가하고 16일 귀국。

▲李昇雨교수님이 本校와 인연을 맺기는 지난 50년—。 35년 京都帝大를 졸업한 후 歸國하여 大邱農專敎授로 渡日, 第6회 韓日친선과수세미나에 참석하고 25일 KAL기편으로 귀국。

▲金炯見 (60불교·동대 助敎) 同門=지난달 27일부터 4일간 세계불교 청년지도자회에 참석, 불교학생부 2명회장으로취임하고 동 본부 순교자 (6명)의 묘지 및 순교자 기념탑 등을 배알하고 귀국。

▲金東英 (61정외·국회 의원) 동문=지난8월27일 자유중국 (대만) 의회초청으로 15일간 시찰, 대만 (62경제·중립 전기통업상사) 동문=지난달 1일 자유중국에서 개최한 아시아 청소년대회에 한국대표로 참가하고 16일 귀국。

▲金巢雄 (62경제·중립 전기통업상사) 동문=지난달 1일 자유중국에서 개최한 아시아 청소년대회에 한국대표로 참가하고 16일 귀국。

東綠會서 定期골프

지난 8月15일 오후 동록회 (회장 金華淳·53政治·대한 대회가 있었다。 최재구·정재철·김동경 (55경제·진명수산사장) 同門등 부산에서 박동호 (52경제·대일·日本 東交部 東北通商사장) 同門등 23명이모였다。

이날 최수상에는 金仁圭 (64정외·제1무임소장 특별정부조정관), 메달리스트에 朴永模 (51국문·서울체신청전부과장), 준우승에 이기홍 (54경제·사업), 3위에 南相電 (52경제), 4위에 김형옥 (54경제), 행운상에 洪鳳來 (53경제) 同門이 각 차지。

同門動靜

▲朴永煥 (51국문·불광 전화국장) 同門=지난 8월5일자로 서울체신청전 ◇在學生에게알림 ▲학학중주위전배들의정학 한 所在를 파악한 학생 ▲本会부국에 명단 있는 학생들의 알도적 학우 연락, 지난 학기 성적표를 그간 主人을잃었던 교정에선 교수님마전도 그저 『허허…』—。 『개학이 개강을 의미함 이 당연지사라면 은 물론 숨 담당교수님 분발했던 주위들 정리하 는듯 게시된 강의시간표를 벼개기에 한 창—。

○…1日、開学을 맞아 그간 主人을잃었던 교정에선 교수님마전도 그저 『허허…』—。 『개학이 개강을 의미함 이 당연지사라면 은 물론 숨 담당교수님 분발했던 주위들 정리하 는듯 게시된 강의시간표를 벼개기에 한 창—。

○…開学후 첫 월요일을 맞은 3일, 학생들은 강의시간표에 따라 講義室을기웃 거렸으나 대부분의 강의 이 휴강돼…。

개학 開講한 강의실마 저도 「텅」빈채 그만 함 께 학생들은 한도적 치 한 학생들의 알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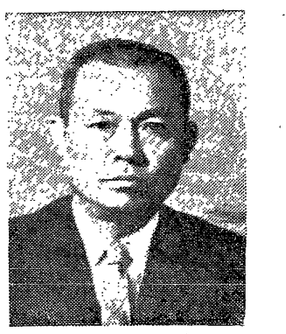
○…본교에서는 지난5일로 밥가을 맞는 학생들, 『C敎授』 앞 잔디밭에 테니스·코트를 만들 예정으로 3개를 만들 예정으로 鑛地자업이한창이다。

○…개학 (?) 힘에 밀려 講堂서 지난 학기 성적표를 받아든 학생들, 『C敎授』 앞 잔디밭에 테니스·코트를 만들 예정으로 3개를 만들 예정으로 鑛地자업이한창이다。

○…본교에서는 지난5일로 밥가을 맞는 학생들, 『C敎授』 앞 잔디밭에 테니스·코트를 만들 예정으로 3개를 만들 예정으로 鑛地자업이한창이다。

휴게실

退職后에도 農學發展에 기여



20年, 정든東岳 떠나는

李昇雨 <農林大> 博士

實習의 보람, 모두 느껴

地域社會啓發에 젊은 自負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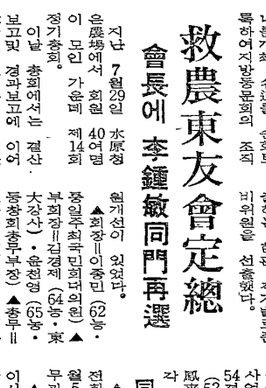
아시나요? 서울 唯一의 純北京料理店
萬里長城을
을지로4가네거리 (27)—9476

종합안경센타
보성당안경원
서울시청앞지하상가311호 24-2647

문교부상관 최우량 수상품
73년 소비자가뽑은인기금상획득
종로 2가 태극당 옆 ☎6161
세고비아기타

육군 공군
행정지원병 모집
육군…만17세이상, 신검여부와 관계없음 (보충역포함)
원하는 시기에 신체검사 및 시험없이 행정병으로 단독입대
후반기 교육면제.
공군…만17세~21세 중졸이상 -신체이상 없는자
수료자는 총무(행정)병으로 우선입대
※ 자군·복무연한은 일반병과 동일 년접후○○명
사단법인 대한글씨검정교육회본회 종로1가2 무과수제과건물 (73)6717

신인남여배우연수생모집
1. 모집구분
①아동…○영화배우
②성인…○TV탤렌트 ○국립극장 산하 연극배우
※본연기지도원 창립 기념으로 신인을 양성하여 배출키 위함
2. 모집기간: 1973년 8월27일~9월13일 (지망생은 현서대 3백원과반송료
3. 접수처: 30원동봉하시압) 서울특별시종구필동1가36-1 (성심병원옆 대혜빌딩601, 602호) ☎ (26) 1417
急…여직원1명 고졸이상 (20세~25세) 용모단정하고 교양있는 여성 (피아노, 타자원) 여교사는 우대함.
관인 인터내쇼날뉴웨이스크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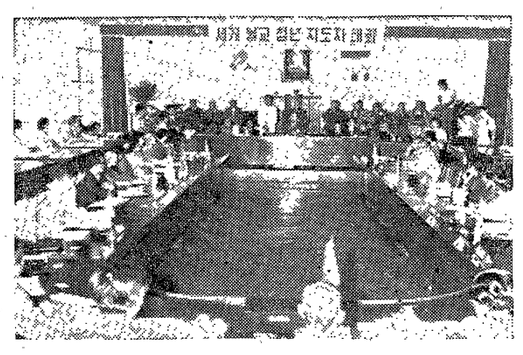


알림
회화 (영어·일본어)를 전혀 못하시는 분을 위하여 좀더쉽고 빠르게 공부할수있는 지름길을 가르쳐드릴려고 상담실을 마련했읍니다.
마음에 부담없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문의 (22) 9295
총무로2가 세종호텔뒤
관인 S·H會話학원 22-9295

공군 행정병 모집
자격~만17세~22세, 신체에 이상이 없는자
1. 교육수료후 간단한 전형후 입대한다
2. 후반기 교육을 면제한다(행정분야에근무)
3. 공군 일반병과 같이 복무(3년)
※자세한 내용은 본학원에 문의바랍니다
공군 참모총장 위촉 제14호
男女 일반타자생 모집
1. 입학시기~수시접수 (시간자유선택)
※취직반은 수료후 취직보장 (매월5명한)
◎동대학생은 수강료 특별우대
공군행정병 양성, 위촉기관
官認 혜화타자학원
혜화동노타리 우석병원옆(74)9337

J.E.L 日本語연구원
개강: 1차 9월3일 2차 9월5일
90분수업에 30분어학실습
을지로6가계림극장맞은편 장충단쪽성산빌딩 4층
전화 ☎2218 ☎6284
독본반: 초급·중급·고급
회화반: 초급회화·중급회화·고급회화 다이제스트·작문
부인회화반:

새 決意로 社會淨化에



主題別實踐方法등 合意

靑年의 佛敎運動 참여 시급
藥物오용은正思良藥으로극복
敎理입각 人口문제에도 참여

來日의 佛國土 建設의 意任을 맡은 靑年仏子의 모임인 世界仏敎靑年指導者大会가 지난8월26일부터 世界仏靑 韓國支会 주최로 6日간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主題는 『靑年仏敎指導者의 역할』 『인구문제』 『약물오용문제』 ―.

참석자들은 모두 一國의 문제는 全世界的인문제이고 너의 문제는 나의 문제라는 同体大悲사상을 강조했다. 따라서 大会에서 제기된 이들 諸문제의 해결해야할 문제임을 절감케했다. 同大会에 참석한 各國 대표들은 分科別 토의와 그 종합보고서 채택에 있어서도 그러한 결의를 명시했다. 主題講演을 要略해 보면 먼저 現代世界에 있어서의 『靑年仏敎指導者의 役割』에 관해 李箕永(前国民大学長)박사는 現代社会의 特徵이 思想的 혼탁과 指導理念으로서의 哲学不在라고 前提하고 現代人은 날은 思想을不信한다고말했다. 또한物質에 대한 지나친 追求, 価値観의진도등 現代社会의 맹점을 지적했다.

이런상황하에서 国際情勢는 점차 平和를 향해 무한한 努力을 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하면서 靑年仏敎指導者는 이 시기에 보살이 되는 길을 大波羅密에 表現된 上求보提 下化衆生이라고 요약했다.

또 이러한 보살의 길을 実現시키기 위해서는 仏敎眞理의 硏究및 伝達方法의 革新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옛날부터들단순히 暗誦하는 靑가 참 仏敎徒는 아니며 靑年仏敎人은 現代의 諸問題點들에 대해 자기자신의仏敎的 回答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仏敎思想의 体得과 生活의 淨化 三昧力의 培養이 自身의 指導力을 함양한다며 김요하다고 한 李博士는 新禍的迷信仏敎로 부터의脫皮를 주장하기도 했다.

다음 『인구문제』에 있어서 오천석씨 (한국인구문제연구소장) 氏는 종교적인 사람들이 인구문제에 관심을갖는것은 宗敎的인 사람들은 生命에 깊은관심을 가진다는 사실에서 발현될수 있다고말했다. 생명은 소중하고 創造的이며 충만한 것으로서우주의 本性이다. 그러나存在하는데 그치지않고 바탈적한 삶을 누리길모두들 원한다고 하면서 그러나 인구증가가 원차그 증가속도를 더해가고있음에서는적극적인가족계획이 시행되고 있다고 덧붙이면서이는 인구정책에서오는 빈곤을 면해야하는탓이라고말한다. 韓国도 근래 가족계획이 활발히 추진중이긴하나 아직 버리려고 하질 않는다. 그러나나폭할만한 성과를 올리기에는 향후10年혹은 15年은 기다려야 하는 형편이라고 하면서 靑年仏敎人은 보람된 삶을 위해 번生者수를 줄이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다음 『藥品오용문제』에 서 金羅海(국립 정신의료원 의사)氏는 人類의 歷史 특히 文化史에 있어 藥의 사용은 중대한 국면이라고 지적하고 그 래서 그에수반되는 많은 부작적 결과가 불가피하게 따라왔다고 했다. 物質文化와 政治経済的 혼란과 관련해서 일부歷史가도 이 진보에 發展을 촉진기도 했는데 現代靑年들이 명확한 문제중의 하나가. 이 藥品오용이라고 했다.

一例로 美보건성의 연례적인 보고서를 보면 『마약화나』의 사용이크 게 문제시되었다. 그것은 고등학생이나 大学生들이 사용하는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는 점을 들었다.

약품남용의 말라다엔 精神病理를 造成하는 社会的 不安 倫理등의 주요 동인인 社会的 약점을 꼬집었다. 이런 규범상실 현상을 仏敎의 위대한 命題인 平常心是와 正思良藥으로 타개하는 것이 적극적인 대책의 하나라고 말했다.

生活의 풍요한 정서적 방향이 되는 즉거운 마음(歡喜心)은 결코 어떤 特殊藥品에서 구해지는 것이 아니라 음식공양이 法謗禪悅의 토대가됨이 法謗禪悅의 토대가됨이라고 역설했다.

다음 인구문제에 대한 綜合보고는 仏敎界에서는 世界人口問題를 인식하고 있다는 선언을 위해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도통』을 약속했다. 실천方法으로 文化의 特殊事情을 고려해서 『인도통』 方法을 결정할 것이며 仏敎敎理의 中道思想을 토대로 各国의 가족계획에 적극참여하기로 결정했다. <大>

世界佛靑 지도자大會 主題발표要旨

前記한 세미나 활동을 종합적으로 結論을 얻었다. 『仏敎靑年指導者의役割』에 관한 종합보고는 우수시키는것이 시급하다고 전제, 이를 위해 旗를 만들고 『유니폼』의 『펜지』를 靑年들의 연령과 취미를고려해서기념적으로 必要한사항을 해결할것에 유意하여야 하며 仏敎圈에 산재해서는 仏子들의 仏子다운 생활을하면서 대중에 伝達해야된다. 靑年을 위한 도서마련, 기관지발행과 放送망이용, 중앙서발행 장학혜택, 靑年交換, 정기밀회개최등을 세부적인 方法으로는 채택했다. 靑年성장方法으로는 社会봉사계획을 수립해서 참여시키고, 國內外 法会나 支会에 참석시키며 仏敎指導者들의 강연을 듣기로 했다.

다음 인구문제에 대한 綜合보고는 仏敎界에서는 世界人口問題를 인식하고 있다는 선언을 위해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도통』을 약속했다. 실천方法으로 文化의 特殊事情을 고려해서 『인도통』 方法을 결정할 것이며 仏敎敎理의 中道思想을 토대로 各国의 가족계획에 적극참여하기로 결정했다. <大>

왕고기다렸읍니다

李 相 文 <1>

많이도 들린 참두릉으로 햇볕은 하얗게 쏟아져 들어와서 방 안을 이리저리 갈라 놓고 있었다. 그 속에서 먼지는 무슨 생명체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한 가닥 햇볕의 끝이 떨어져 나와 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재떨이에서 꽁초를 하나 끌라내 입에 물고 불을 붙이면서 지금껏 나서야 회사에 늦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몇 번인가 빨고나니 손이 드거웠다. 꽁초를 버리려고 재떨이를 가져갔던 손을 무엇에 놀란 듯 쉽게해져서 움추렸다. 담배불은 뜨겁다. 그러나 그는 아직 버리려고 하질 않는다. 뜨겁지만 그는 참고 있는 것이었다.

타의에 의해 자신의 불리한 처지가 결정지어질 때, 숙명적인 강열한 도전의식. 그는 자기 시험을 하고 있는것이었다. 뜨거움을 견디어 내면 일이 잘 될 수 있다는―.

뜨거움은 손끝에서 신경을 타고 온 몸으로 퍼져 나갔다. 그래서 머리끝에서 발톱까지를 달달 볶아 댔다. 담배를 쥔 오른 손에 바둘 바둘 경련이 일었다.

그래도 그는 결코 담배를 버리려고 하지를 않았다.

손가락 사이에서 저절로 꺼져버렸다.

그는 후 한 숨을 내어서 였다. 그리고 그 때야 꽁초를 재떨이에 버렸다.

두 손가락의 물을 멈한시선으로 내려다 봤다. 불에는 엷은미소가 배어왔다. 희열일것이다.

거기에 적어도 조금은 자조만 섞여 있을 것이었다. 그것들은 오늘 하는일에 대한 가능성을 의미해 주었다는 스스로의 모습과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해야만 하는 처지의 또 다른 진이 엇갈려서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로서는 무슨 일이건 참고 견디는 것에는 자신이 있었다. 십 년 이상 몸을 담았던 회사의 사훈 (社訓) 이 그 것이었고 생활신조 또한 그것이었다. 그에게 회사 일 외에 마음을 쏟을 만한 기회도 없었지만 닥치는 모든일이 참고 견디어서 안 되는 때가 없었다.

그는 또 한번 길게 한숨을 내어서 고는 벌떡 몸을 일으켰다.

때가 꾀죄죄한, 그래서 보색이 무엇이였는지 찾아보기가 힘든 누루깽깽한 바바리를 벽에서 떼어 입었다. 접시 망도 닦지 않은 채 달려 나왔다. 도시락이 든 비닐가방을 어루만지듯 겨드랑에 끼고 방문을 열었다. 허옇게 색갈이 날아간 두 쪽짝의 구두 속에 햇볕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것을 뚫는 다리가 휘청거렸다. 더문께로 가 판자문의 고리를벗겼다. 어디서 보고있었던지 일찍 동아 노파의 불안한 목소리만 들렸다. 멀찍 하고 문 닫는 소리로 대답을 던진하고 집을나섰다.

하늘은 맑게 멀어져 있었다. 불이 오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아직 날씨는 푸원다. 그는 한번 몸을 으스스 떨고는 코트깃을 세우고 걸어갔다.

지금 그는 한 달 동안이나 쉬었던 회사에 출근하고 있는 것이었다. 운수가사나와―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 팔자에 없는 형무소 생이를 하고나 콘크리트 건물인 수위실 창문이 반짝 다고 하는편이 더어울릴지 몰랐다.

그 날 밤, 그는 시내 한 술집에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부터 마셔었다. 그러니까 한달전의 이야기다. 파(罷)의 파장과 사월 한사흘 밤이 새로와서 텁텁함과는 것이었다. 눈 떠신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알롯은 그 날 술을 마셨었다. 그러니까 한달전의 이야기다. 파(罷)의 파장과 사월 한사흘 밤이 새로와서 텁텁함과는 것이었다. 눈 떠신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알롯은 바람조차 한 점 없었다. 소위 이상기온이 밀어다친 모양이었다.

평소 누구와 어울려서, 술집 같은데 그가 술자리가 끝나서 집으로 돌아오는길은 몽롱하게 취해 있었다. 시야는 유독 술이 많았다.

그가 술자리가 끝나서 집으로 돌아오는길은 몽롱하게 취해 있었다. 시야는 유독 술이 많았다.

그가 술자리가 끝나서 집으로 돌아오는길은 몽롱하게 취해 있었다. 시야는 유독 술이 많았다.

그가 술자리가 끝나서 집으로 돌아오는길은 몽롱하게 취해 있었다. 시야는 유독 술이 많았다.

그가 술자리가 끝나서 집으로 돌아오는길은 몽롱하게 취해 있었다. 시야는 유독 술이 많았다.

그가 술자리가 끝나서 집으로 돌아오는길은 몽롱하게 취해 있었다. 시야는 유독 술이 많았다.

그가 술자리가 끝나서 집으로 돌아오는길은 몽롱하게 취해 있었다. 시야는 유독 술이 많았다.

그가 술자리가 끝나서 집으로 돌아오는길은 몽롱하게 취해 있었다. 시야는 유독 술이 많았다.

그가 술자리가 끝나서 집으로 돌아오는길은 몽롱하게 취해 있었다. 시야는 유독 술이 많았다.

그가 술자리가 끝나서 집으로 돌아오는길은 몽롱하게 취해 있었다. 시야는 유독 술이 많았다.

그가 술자리가 끝나서 집으로 돌아오는길은 몽롱하게 취해 있었다. 시야는 유독 술이 많았다.

그가 술자리가 끝나서 집으로 돌아오는길은 몽롱하게 취해 있었다. 시야는 유독 술이 많았다.

그가 술자리가 끝나서 집으로 돌아오는길은 몽롱하게 취해 있었다. 시야는 유독 술이 많았다.

그가 술자리가 끝나서 집으로 돌아오는길은 몽롱하게 취해 있었다. 시야는 유독 술이 많았다.

그가 술자리가 끝나서 집으로 돌아오는길은 몽롱하게 취해 있었다. 시야는 유독 술이 많았다.

그가 술자리가 끝나서 집으로 돌아오는길은 몽롱하게 취해 있었다. 시야는 유독 술이 많았다.

그가 술자리가 끝나서 집으로 돌아오는길은 몽롱하게 취해 있었다. 시야는 유독 술이 많았다.

그가 술자리가 끝나서 집으로 돌아오는길은 몽롱하게 취해 있었다. 시야는 유독 술이 많았다.

그가 술자리가 끝나서 집으로 돌아오는길은 몽롱하게 취해 있었다. 시야는 유독 술이 많았다.

그가 술자리가 끝나서 집으로 돌아오는길은 몽롱하게 취해 있었다. 시야는 유독 술이 많았다.

그가 술자리가 끝나서 집으로 돌아오는길은 몽롱하게 취해 있었다. 시야는 유독 술이 많았다.

그가 술자리가 끝나서 집으로 돌아오는길은 몽롱하게 취해 있었다. 시야는 유독 술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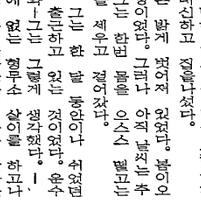
그가 술자리가 끝나서 집으로 돌아오는길은 몽롱하게 취해 있었다. 시야는 유독 술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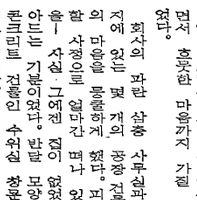
그가 술자리가 끝나서 집으로 돌아오는길은 몽롱하게 취해 있었다. 시야는 유독 술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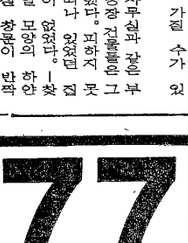
그가 술자리가 끝나서 집으로 돌아오는길은 몽롱하게 취해 있었다. 시야는 유독 술이 많았다.

77POINT

77個所의 엄격한 검사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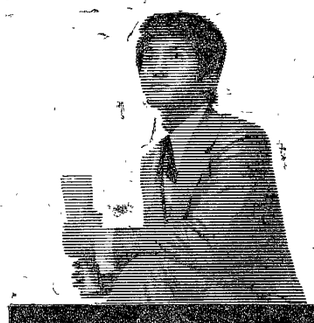




第一服裝의 댄디신사복은 단 한 군데의 검사기준 미달도 없읍니다.
댄디신사복은 완벽한 品質,頂上의 기술로 기성복의 次元을 높였읍니다.
주문복 시대에서 기성복시대로! 급전하고 있는 이제 第一服裝은 앞장서 硏究開發합니다.
기성복의 品位를 높인 댄디신사복

'73型 뉴-모드
댄디추동복판매개시

第一服裝은 '73型 뉴모드, 댄디콤비를 비롯하여 6,660種의 풍부한 색상과 뉴스타일의 각종 신사복을 화려하게 진열해 놓았읍니다.



Dandy 댄디

기성복의 명문
제일복장

東國이

천 기호

思索의 길을 오르다가

張 淑 賢
<文理大 国文科>

빛나는 귀를 모아 별들을 부르며
꽃 속을 기어가는 한 마리 바퀴벌레,
아슬히 이어지는 별과 별 사이
明滅하던 말씀들은
어디 쯤에 잠들어 있을까.
深淵을 눈웃음치는 가증스런 살결의
지나온 길 위에 흩뿌린
벌레먹은 생생한 슬픔이
눈 뜨는 모퉁이에서 어둠을 떨고
빛이 일어선다.

비스듬히 황혼에 기대오는 아슬한 情景일까
古塔의 마른 뼈와
幼木들의 우울한 몸리듬
편백나무의 정직한 팻말이 슬프다.
피빛 바탈에 아프게 새긴 오천년 版畵.
江山의 꽃잎 뛰어가는 실바람을 피해
젊은 나무들은 함시 숨찬 머리를 흔들고있다.

쓸쓸한 눈빛을 바라보며 떠돌고
끝없이 던지는 몇 개의 質問.
안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모른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인가.

눈 부시게 쏟아지는 싸락눈을 맞으며
새벽의 빈곤한 눈시울마다
바람결에 그을은 꿈 언저리 아른거리는
플롯을 피우며
尖塔 위에 비둘기가 날개를 펼다.
꺼질듯 짓밟이 보인다
나부끼는 그 눈이 멀지는 언젠지는 빛의바탈.
그 눈들의 지혜 속에 무수히 지난
바탈은 저토록 면밀한 옹심로
하늘의 은빛 가지들 자아내며
눈물의 크기 만큼
숙기로운 진말을 펼쳐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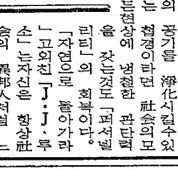
편백나무의 하얀 팻말처럼
눈물에 진실을 묻었다.

두 東國人 새로 詩壇에

朴柱官君

조용히 詩에 接近

<文理大 国文科>



『詩經을 섭렵하는 3년고 10년이나 걸부가 늦었다』고 추천받는 鄭光修同門.

鄭同門은 『現代文学』 8月號에 詩 「立春」, 「銀河」 「蹄跡」 等을 추천받아 오랜만에 文壇의 새 얼굴이 되었다.

鄭시인이 즐겨 읽는책은 詩経과 仏経. 『俳彼雲漢 昭回于天…』이란 詩経 蕩之什의 雲漢의 첫 句인데, 鄭詩人은 心中에 잠재한 情緖를 뿌리깊은 生命으로 深化했기 때문에 늘 가슴속에 즐겨 외운다고한다. 『韓紙에/立春을 펼쳐 쓰다/눈 울음소릴는 다/(中略) 어혀, 톡톡가/(잠한채 안 남기고)/복숭아 꽃으로 살구꽃으로 /불타오르는 아 봄이여 다』라는 詩句는 「立春」의 一節. 常用語로 처리된 이 詩는 每年 無意識的으로 맞는 봄을 나직이 그리고 있다.

<現代文學> 誌추천받은

鄭光修동문

韓國的 情緖표현

詩推薦後記에서 未堂先生은 『언제 어디서의 역경속에서도 늘 風流의여유일 수 있는 슬기의情緖이 배우 有力한 韓国의 情緖임은 물론 별로 技巧부로 살구꽃으로 나부끼는 한 그루의 목화를 聯想케하는 말솜씨는 그의 詩精神에 잘 어울리는 言語美学』이라고 評하기도.

雅號는 『又竹』. 未堂先生이 손수 지어주셨다.

<文理大 国文科>

鄭詩人은 이미 『統一生活』신춘문예 최우수작상선을 한 바 있으며 아현국민학교에서 교편을잡고 있다.

大田師範을 거친뒤 李在福先生의 지도로 本校 仏敎科에 入学, 文学수업을하다가 法科로転科, 卒業을했다.

『母校의 교수님들께感謝를 드리고 이번 詩推薦의 기쁨을 아내에게돌리고싶다는 고 하면서 겸손해 한다.

<略 歷>

▲1939년 충남出生
▲36년 本校法科卒▲対共 間題研究所委員(주소=마포구아현동699의8)

<文理大 国文科>

文理大 國文科 1学年 朴柱官君―

나이에 비해 知的으로 성숙한 그는 역시 詩人다운 感性이 넘친다.

『별것 아닌 일을 별것으로 만들수밖에 없으며 조용히 詩에의 接近을 시도할뿐』이라고推薦完了所感에서 그의 詩에 対한 애착을 披瀝한다.

그는 月刊 詩誌 「풀과 별」 3月號에 「바다의속」 파 「젖어서 사는 慾味」를 推薦받고 바로 뒤이어 同誌9月號에 作品 「풀과 별」로 추천받은 그의 데뷔작품 「꽃 도 誠実型.

『언제였던가 봄이 내눈과 마주치던 날이― 비어있는 나의 화병에 물소리가들린다』로 시작되는 그의 데뷔작품 「꽃 술」도 형제 끝게 읽어볼 수 있을까할 정도로 表現이 세련되어 있다.

李東柱, 徐延柱, 申瞳集, 金潤成, 辛夕汀 諸시인들.

우주인이 지구궤도를 벗어나 현재에서 내려다보는 또하나의 지구의 모습은 壯観보다 詩로 지구덩지않게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자기나름대로 美熱을 쏟는다고말한다.

사상이 지나게 강조된 詩는 별로 아름답지 못하다 『詩는 정서적 사상의 등가물이어야는 T·S엘리엇트의 말에 공감이라고―.

朴君의 고교재학시에는 이수복, 주기우, 박경석등 세 詩人의 지도를 받기도.

<略歷>

▲1954년全南光州出身
▲光州西中, 一高卒
▲73年 本校国文科入学.

<文理大 国文科>

化淨大學

1週前에일어나 社会의 쓰레기들을 쓸어내는 청소부 노릇을 하고 있었다. 그 속에서 먼지가 가라앉고 차츰 맑아지는 것을 보면 나는 그 일이 얼마나 의의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

그는 한 가닥 햇볕의 끝이 떨어져 나와 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재떨이에서 꽁초를 하나 끌라내 입에 물고 불을 붙이면서 지금껏 나서야 회사에 늦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몇 번인가 빨고나니 손이 드거웠다. 꽁초를 버리려고 재떨이를 가져갔던 손을 무엇에 놀란 듯 쉽게해져서 움추렸다. 담배불은 뜨겁다. 그러나 그는 아직 버리려고 하질 않는다. 뜨겁지만 그는 참고 있는 것이었다.

타의에 의해 자신의 불리한 처지가 결정지어질 때, 숙명적인 강열한 도전의식. 그는 자기 시험을 하고 있는것이었다. 뜨거움을 견디어 내면 일이 잘 될 수 있다는―.

뜨거움은 손끝에서 신경을 타고 온 몸으로 퍼져 나갔다. 그래서 머리끝에서 발톱까지를 달달 볶아 댔다. 담배를 쥔 오른 손에 바둘 바둘 경련이 일었다.

그래도 그는 결코 담배를 버리려고 하지를 않았다.

손가락 사이에서 저절로 꺼져버렸다.

그는 후 한 숨을 내어서 였다. 그리고 그 때야 꽁초를 재떨이에 버렸다.

두 손가락의 물을 멈한시선으로 내려다 봤다. 불에는 엷은미소가 배어왔다. 희열일것이다.

거기에 적어도 조금은 자조만 섞여 있을 것이었다. 그것들은 오늘 하는일에 대한 가능성을 의미해 주었다는 스스로의 모습과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해야만 하는 처지의 또 다른 진이 엇갈려서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로서는 무슨 일이건 참고 견디는 것에는 자신이 있었다. 십 년 이상 몸을 담았던 회사의 사훈 (社訓) 이 그 것이었고 생활신조 또한 그것이었다. 그에게 회사 일 외에 마음을 쏟을 만한 기회도 없었지만 닥치는 모든일이 참고 견디어서 안 되는 때가 없었다.

그는 또 한번 길게 한숨을 내어서고는 벌떡 몸을 일으켰다.

때가 꾀죄죄한, 그래서 본색이 무엇이였는지 찾아보기가 힘든 누루깽깽한 바바리를 벽에서 떼어 입었다. 접시 망도 닦지 않은 채 달려 나왔다. 도시락이 든 비닐가방을 어루만지듯 겨드랑에 끼고 방문을 열었다. 허옇게 색갈이 날아간 두 쪽짝의 구두 속에 햇볕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것을 뚫는 다리가 휘청거렸다. 더문께로 가 판자문의 고리를벗겼다. 어디서 보고있었던지 일찍 동아 노파의 불안한 목소리만 들렸다. 멀찍 하고 문 닫는 소리로 대답을 던진하고 집을나섰다.

하늘은 맑게 멀어져 있었다. 불이 오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아직 날씨는 푸원다. 그는 한번 몸을 으스스 떨고는 코트깃을 세우고 걸어갔다.

지금 그는 한 달 동안이나 쉬었던 회사에 출근하고 있는 것이었다. 운수가사나와―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 팔자에 없는 형무소 생이를 하고나 콘크리트 건물인 수위실 창문이 반짝 다고 하는편이 더어울릴지 몰랐다.

그 날 밤, 그는 시내 한 술집에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부터 마셔었다. 그러니까 한달전의 이야기다. 파(罷)의 파장과 사월 한사흘 밤이 새로와서 텁텁함과는 것이었다. 눈 떠신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알롯은 바람조차 한 점 없었다. 소위 이상기온이 밀어다친 모양이었다.

평소 누구와 어울려서, 술집 같은데 그가 술자리가 끝나서 집으로 돌아오는길은 몽롱하게 취해 있었다. 시야는 유독 술이 많았다.

그가 술자리가 끝나서 집으로 돌아오는길은 몽롱하게 취해 있었다. 시야는 유독 술이 많았다.

그가 술자리가 끝나서 집으로 돌아오는길은 몽롱하게 취해 있었다. 시야는 유독 술이 많았다.

그가 술자리가 끝나서 집으로 돌아오는길은 몽롱하게 취해 있었다. 시야는 유독 술이 많았다.

그가 술자리가 끝나서 집으로 돌아오는길은 몽롱하게 취해 있었다. 시야는 유독 술이 많았다.

그가 술자리가 끝나서 집으로 돌아오는길은 몽롱하게 취해 있었다. 시야는 유독 술이 많았다.

그가 술자리가 끝나서 집으로 돌아오는길은 몽롱하게 취해 있었다. 시야는 유독 술이 많았다.

그가 술자리가 끝나서 집으로 돌아오는길은 몽롱하게 취해 있었다. 시야는 유독 술이 많았다.

그가 술자리가 끝나서 집으로 돌아오는길은 몽롱하게 취해 있었다. 시야는 유독 술이 많았다.

그가 술자리가 끝나서 집으로 돌아오는길은 몽롱하게 취해 있었다. 시야는 유독 술이 많았다.

그가 술자리가 끝나서 집으로 돌아오는길은 몽롱하게 취해 있었다. 시야는 유독 술이 많았다.

그가 술자리가 끝나서 집으로 돌아오는길은 몽롱하게 취해 있었다. 시야는 유독 술이 많았다.

그가 술자리가 끝나서 집으로 돌아오는길은 몽롱하게 취해 있었다. 시야는 유독 술이 많았다.

그가 술자리가 끝나서 집으로 돌아오는길은 몽롱하게 취해 있었다. 시야는 유독 술이 많았다.

그가 술자리가 끝나서 집으로 돌아오는길은 몽롱하게 취해 있었다. 시야는 유독 술이 많았다.

그가 술자리가 끝나서 집으로 돌아오는길은 몽롱하게 취해 있었다. 시야는 유독 술이 많았다.

그가 술자리가 끝나서 집으로 돌아오는길은 몽롱하게 취해 있었다. 시야는 유독 술이 많았다.